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번역 비교 분석

김 만 수  
(대전대)

### 1. 머리말

2009년에 김만수와 허문순이 번역한 『전쟁론』<sup>1)</sup> 완역 두 종이 출간되었다. 그래서 2011년 현재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우리말 번역은 완역, 중역(重譯), 발췌역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종에 이른다(김만수 2010c: 100). 『전쟁론』의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을<sup>2)</sup> 감안할 때, 『전쟁론』의 새로운 번역본은 당분간 출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이 번역서들의 번역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더 나은 『전쟁론』 번역본이 출간되는데 필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 1) 1832-1834년에 출간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서양사상이나 전쟁철학 분야에서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 2) 『전쟁론』은 미완으로 출간되었으며 매우 난해한 책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저술 과정에서 내용에 관한 결정적인 수정 의도를 비쳤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저서에서 철학적 수준의 일관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발리바 2006: 114).

그런데 『전쟁론』의 번역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인터넷) 독자 서평에서 흔히 보는 것과 달리, 일반 독자들이 『전쟁론』의 번역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 『전쟁론』 원문이 영어도 아니고 『전쟁론』이 대중적인 문학작품도 아니며 『전쟁론』의 내용이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도 드물다. 그나마 『전쟁론』의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종학(2002a, 2002b)과 김만수(2003a)의 논문 정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종학의 연구는 ‘번역’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전쟁론』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종학의 연구와 달리, 김만수의 연구는 『전쟁론』의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김만수의 2003년 연구를 잇고 있다.

이 논문이 대상으로 삼는 『전쟁론』의 번역 텍스트는 김만수(2010c: 101)의 연구에서 살펴본 여섯 종의 번역이다.<sup>3)</sup> 여기에 김홍철의 번역도 살펴볼 것이다. 김홍철이 많은 측면에서 번역의 ‘독특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이 논문에서 다루는 TT는 출간연도 순으로 권영길(1972), 이종학(1972), 김홍철(1982), 강창구(1991), 류제승(1998), 허문순(2009), 김만수(2006-2009)의 번역이다.<sup>4)</sup> 그리고 우리말 TT와 갖는 관련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과 일어 번역도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전쟁론』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미시 분석’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다(본론 2). 그리고 이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전쟁론』 번역본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자세하고 철저하게 독일어 원문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본론 3). 끝으로 이러한 비교 분석의 결과를 통해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본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 연구의 장단점을 점검하여 향후 과제를 설정할 것이다(결론 4).

3) 이상원(2005: 18)은 번역과 달리 따로 ‘출판 번역’ 개념을 설정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출판 번역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으며, 번역은 곧 출판 번역을 뜻한다.

4) 김만수(2010c: 101)의 연구에 이 번역본들의 출간 이력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허문순 번역의 『전쟁론』에 관한 해설은 김만수(2009b: 309-311) 참조.

## 2. 비교 분석의 방법론

번역 비평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ST와 TT를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확인하는데 있다(A. Popović 1973, 전현주(2008: 72)에서 재인용). 오류를 관찰하는 것은 번역이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M. Ballard 2005, 전성기(2008a: 170)에서 재인용) 더 나은 번역물을 출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오류를 분석한 대표적인 예로 강대진(2004)과 이재호(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영미문학연구회(이하 영미연) 번역평가사업단(2005)의 연구도 넓게 보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논문이 말하는 ‘비교 분석’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오류 분석’의 연장선상에 있다.

논문의 이러한 목표에 따라 비평의 기준은 ‘보수적으로’ 설정한다. 달리 말해 번역학의 비평 이론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이론을 따르고 이미 축적되어 있는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다. 그 이론과 성과의 최소 공통분모는 충실성과 가독성이다(영미연 2005: 4-7과 21-22). 아래에서는 원천 지향적인 접근을 토대로 ST와 TT들을 비교 분석하고, TT들 간의 비교에서는 목표 지향적인 접근도 수행한다. 즉 이 논문에서 수행하는 비교 분석의 기준은 (주로) 충실성과 (부차적으로) 가독성이다.<sup>5)</sup> 이 기준의 세부 항목으로 오역, 오류, 고유명사 표기, 첨삭, 누락은 물론 지리, 우리말 어법, 한자어 사용, 번역자의 윤리 등을 들 수 있다(이상원 2005: 94-124, 전현주 2008: 75-79). 이 항목들 중에 『전쟁론』의 내용과 관련을 갖는 항목들을 아래의 『전쟁론』 번역서의 비교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충실성과 가독성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저자는 이 논문에서 이른바 ‘미시 분석’ 또는 ‘현미경 분석’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 방법론에 따라 비교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비교 분석의 방법론을 ‘미시 분석’으로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론』 텍스트의 ‘일부’ 내지 ‘특정 측면으로’ 분석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윌리엄스와 체스터먼 2006: 48) 그러하다. 이는 『전쟁론』의 방대한 분량 및 본 논문의 제한된 분량과 관련된다. 둘째로 그 일부에 관한 한, 우리말 TT를 ‘전부 자세하고 치밀하며 철저하게’ ST와 비교 분석한다는 점에

5) 본 논문은 비교 분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영미연(2005: 24-25)의 연구처럼 『전쟁론』 우리말 TT들에 등급을 매기고 추천본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

서 그러하다. 이는 본 논문이 수행하는 비교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로 우리말 번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영어 번역과 일어 번역도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sup>6)</sup>

### 3. 『전쟁론』 번역의 비교 분석

『전쟁론』 번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말 번역에서 권영길과 이중학의 번역은 일본어 번역을 중역하여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다. 강창구, 허문순의 번역은 권영길의 번역을 많이 참조한 ‘우리말 중역’ 수준의 번역이다. 김홍철의 번역은 지나친 의역과 ‘번안’ 수준의 번역으로 원문의 이해를 벗어난 부분이 많이 보인다. 류제승의 번역은 초역이고 영역도 참고하였는데, 직역투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다. 김만수는 독어 원전을 텍스트로 삼아 영어 번역, 일어 번역, 기존의 우리말 번역을 모두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김만수의 번역에서는 큰 오류를 찾을 수 없고 텍스트의 구성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 『전쟁론』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는 문제점의 유형은 『전쟁론』의 핵심 개념이나 용어에서 오역이 나타나는 경우,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경우, 외국의 지명 표기와 관련된 오류, 우리말 문장이 지나치게 긴 경우 등이다.

#### 3. 1. 개념의 오역 - 공법과 공론의 차이

『전쟁론』 본문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에서 『전쟁론』 우리말 번역의 많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그 문제점은 일본어 번역의 중역, 표절, 핵심 개념의 오역, 문장을 임의로 나누기, 쓸데없는 덧붙임 등이다.

[TT1] 우리는 이제 전쟁에 관하여 번거로운 공법학적 정의(公法學的 定義)를 캐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근원적 요소, 즉 두 사람 사이의 결투

6) ‘미시 분석’ 또는 ‘현미경 분석’은 저자가 고안하여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번역학(계)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다.

라는 점에 시점(視點)을 두려고 생각한다.(권영길 상권 27)

- [TT2] 우리는 지금 전쟁의 정의(定義)에 대하여 어색하고 복잡한 의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 즉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결투(決鬪)를 생각하려 한다.(이종학 71)
- [TT3] 우리는 전쟁에 관하여 국제공법학자(國際公法學者)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은 애매하고 난해한 정의에 대하여 논의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곧바로 전쟁 그 자체의 본질적 요소에 대하여, 즉 결투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김홍철 53)
- [TT4] 우리는 이제 전쟁에 관하여 번거로운 공법학적 정의(公法學的 定義)를 캐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근원적 요소, 즉 두 사람 사이의 결투라는 점에 관점(觀點)을 두려고 생각한다.(강창구 상권 27)
- [TT5] 여기서는 전쟁에 대한 난해한 정론(政論)적 정의를 다루지 않고, 전쟁의 요소, 즉 양자 결투에 관해 논급하고자 한다.(류제승 33)
- [TT6] 우리는 공법학자(公法學者)들 사이에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 번거로운 정의를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우리로서는 전쟁을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요소, 즉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투에 착안해 보고자 한다.(허문순 31)
- [TT7] 여기에서는 전쟁에 관해 여론에 따르는 느려터진 정의에 빠져들지 않고 곧바로 전쟁의 구성요소인 결투(Zweikampf, duel)를 살펴보기로 하겠다.(김만수 1권 45)
- [TT8] I shall not begin by expounding a pedantic, literary definition of war, but go straight to the heart of the matter, to the duel.(83)
- [TT9] 我々は戦争について公法學者たちのあいだで論議されているようなこちたい定義を, 今さらここであげつらう積りはない. 我々としては, 戦争を構成している窮極の要素, 即ち二人のあいだで行われる決鬪に着目したい.(上 28)
- [ST] Wir wollen hier nicht erst in eine schwerfällige publizistische Definition des Krieges hineinsteigen, sondern uns an das Element desselben halten, an den Zweikampf.(27)
- [대안] 여기에서는 여론에 따라 번거롭게 전쟁을 정의하지 않고, 곧바로 전쟁의 핵심인 결투를 살펴보도록 한다.7)

우리말 번역을 보면, TT1과 TT4 사이에는 ‘시점’을 ‘관점’이란 낱말로 바꾼 것 외에 차이점이 없다. 즉 TT4는 TT1의 표절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일본어 번역과 우리말 번역을 비교하면, TT1, TT3, TT4, TT6은 TT9와 상당히 비슷하다. 출간 시점을 고려할 때, TT1은 TT9의 중역이며 TT3, TT4, TT6은 TT1의 표절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sup>8)</sup>

TT3에는 ‘사용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은’이나 ‘그 자체의 본질적’처럼 원문에 없는 말을 삽입한다든지, ‘대하여’를 세 번이나 중복하였다. TT6에도 ‘흔히’, ‘지금’,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등 원문에 없는 표현을 덧붙였다. 그래서 TT3과 TT6의 문장은 불필요하게 길어졌고, 원문의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었다. 『전쟁론』과 같은 고전 번역에서 원문의 문장을 임의로 나누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TT3과 TT6은 ST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 번역에서 TT3과 TT7을 제외한 모든 번역(TT1-TT6)이 ‘결투’ 앞에 ‘두 사람’이나 ‘양자’라는 수식어를 번역에 덧붙였다. 이것은 일본어 번역의 영향으로서 군더더기라고 할 수 있다. 결투는 “승패를 결정하려고 벌이는 싸움”이나 “원한이나 모욕 따위를 풀려고 일정한 조건과 형식 아래에서 벌이는 싸움”이란<sup>9)</sup> 뜻을 갖고, 대개 두 집단이나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다. 즉 결투의 개념에는 두 사람이나 두 집단(또는 한 사람과 한 집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뜻이 이미 함축되어 있다. 독일어의 ‘Zweikampf’나 영어의 ‘duel’에 이미 두 사람이란 뜻이 들어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나 ‘양자’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7) 우리말 번역본에는 역자의 이름과 쪽수만 밝힌다. 영어 번역, 일어 번역, 독어 원문에는 쪽수만 밝히고,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밑줄과 대안 번역은 모두 저자의 것이다.

8) 이 논문에서는 독어를 텍스트로 삼고 일본어 번역을 참고했다고 밝힌(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우리말 번역본에서 독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일어투의 문장만 (주로) 보일 경우에 그 번역본을 중역으로 정의한다. 또한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나중에 출간된 우리말 번역본이 먼저 출간된 우리말 번역본을 (상당한 정도로) 똑같이 옮겼으면 그 번역본을 표절로 정의한다.

9)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참조. 우리말 뜻은 모두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여기에 있는 번역들이 보여주는 차이나 오역의 핵심으로 ‘여론에 따르는 느리고 번거로운 정의’(eine schwerfällige publizistische Definition)를 들 수 있다. 형용사 ‘publizistisch(e)’의 명사형은 ‘Publizistik’이고, 이 단어는 책, 언론,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에서 공적으로 관심 있는 모든 일을 다루는 영역을 뜻한다. 또는 대중매체에 관한 학문이나 여론(공론)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0)</sup> 학문체계로 말하면 언론학, 언론정보학, 신문방송학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학문체계로 간주하지 않으면, 여론이나 공론으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론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뜻하고, 공론은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을 의미하므로, 이 뜻이 ‘Publizistik’에 해당한다.

전쟁의 개념은 공론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정의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번거로운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듣지 않고 곧바로 결투를 살펴보는데, 결투에서 두 사람은 폭력으로 상대를 쓰러뜨려 자신의 의지를 상대에게 관철하려 한다. 전쟁을 확대된 규모의 결투로 이해하면, 전쟁을 곧바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결투의 개념을 토대로 하면, 전쟁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의를 전개하려는 것이 이 문장에 나타난 클라우제비츠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즉 ‘Publizistik’을 ‘여론’이나 ‘공론’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schwerfällig(e)’는 ‘느리고 번거로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잡스러운’이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말 번역에서는 TT7이 ST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TT7과 달리, 다른 우리말 번역에서는 충실하지 못한 번역을 볼 수 있다. TT2는 이 부분을 ‘어색하고 복잡한 의논’이라고 번역했다. ‘의논’은 단어의 뜻으로도 문맥상으로도 ‘Publizistik’에 해당하지 않은 번역이다. TT5는 이 부분을 ‘난해한 정론적 정의’라고 번역했는데, 정론은 “정치에 관한 평론이나 의견”을 뜻하므로, 원문의 뜻에서 벗어난 번역이다.

‘공법학적 정의’(TT1), ‘국제공법학자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은 애매

10) “a) Bereich der Beschäftigung mit allen die Öffentlichkeit interessierenden Angelegenheiten in Buch, Presse, Rundfunk, Film, Fernsehen; b) Wissenschaft von den Massenmedien und ihrer Wirkung auf die Öffentlichkeit”(Duden 1990 참조).

하고 난해한 정의'(TT3), '공법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 번거로운 정의'(TT6) 등의 번역은 일본어 번역(TT9)의 중역이다. 공법은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고, 이는 사법에 대응된다. 사법은 “민법, 상법 등으로 개인 사이의 재산, 신분 따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공법(公法)은 일본어로도 한국어로도 원문의 공론(Publizistik)과는 다른 뜻을 갖는다. 결국 TT9도 오역이며, 세 개의 우리말 번역은 TT9를 중역한 셈이 되었다.

영어 번역(TT8)은 독어를 과감하게 의역하였다. 그래서 TT8에서는 원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전쟁에 관한 현학적이고 문학적인 정의’(a pedantic, literary definition of war)라는 번역은 원문의 뜻에서 상당히 떨어진 번역이다. 무엇이 전쟁에 관한 현학적이고 문학적인 정의인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TT8을 ‘현학적이고 문학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공론 이외에 논의할 수 있는 단어로 ‘Element’를 들 수 있다. 이 낱말은 ‘요소, 요인, 구성 요소, 활동 영역, 본령’ 등 여러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의 맥락에서는 ‘본령(本領)’이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본령은 “근본이 되는 강령이나 특질”이란 뜻으로, 근본이나 핵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본령이란 낱말이 약간 낯설기 때문에 그리고 원문에 충실한 TT7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보는 대안번역을 제안한다.

### 3. 2. 용어의 오류 - 야성과 잔인함

여기에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적인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잔인한 폭력성이다.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나폴레옹은 적이 쓰러질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했다. 프랑스혁명 이전에 그리고 주로 용병을 이용하는 전쟁에서는 군주들이 되도록 전투를 치르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용병은 매우 ‘값비싼’ 전쟁 도구였으므로, 한 번 파괴되면 용병을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랑스혁명으로 전쟁의 수단과 노력에서 제한이 사라지고, 전쟁은 잔인한 폭력성의 수준에 이르렀다. 프랑스혁명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났다. 정부의 성격, 통치술, 행정력, 국민의 상태 등이 급격히 변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즉 전 국민이 무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극한에 이르는 무자비한 폭력을 쓰는 방향으로 전쟁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으므로, 이는 잔인함이나 잔혹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TT1] 우리는 전쟁을 이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쟁에 내포되어 있는 야성(野性)을 혐오하는 나머지 전쟁 자체의 본성을 무시하려는 것은 앞뒤가 전도된 생각이다.(권영길 상권 28)
- [TT2] 우리들은 전쟁의 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거친 요소를 싫어한 나머지 전쟁의 본질을 무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생각이다.(이종학 72)
- [TT3] 전쟁의 본질문제, 즉 힘의 극대사용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관찰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 본연의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질의 고려를 외면할 경우에는 하등의 목적도 없는,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의 이익마저도 거역하는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다.(김홍철 54-55)
- [TT4] 우리는 전쟁을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전쟁에 내포되어 있는 야성(野性)을 혐오하는 나머지 전쟁 자체의 본성을 무시하려는 것은 앞뒤가 전도된 생각이다.(강창구 상권 28-29)
- [TT5] 이상과 같이 전쟁을 인식해야 한다. 야만적 요소에 대한 거부 의지로 인해 전쟁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은 헛되고 그릇된 노력이다.(류제승 35)
- [TT6] 우리는 전쟁을 이와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조잡한 요소를 혐오한 나머지, 전쟁 그 자체의 본성을 무시하려는 것은 무익한, 아니 일의 앞뒤를 그르친 생각이다.(허문순 32-33)
- [TT7] 전쟁은 위와 같이 보아야 하며, 전쟁의 잔인함을 혐오한다고 해서 전쟁의 본질을 무시하려 한다면 이는 쓸데없는 생각이며 잘못된 노력이 될 것이다.(김만수 1권 48)
- [TT8] This is how the matter must be seen. It would be futile – even wrong – to try and shut one’s eyes to what war really is from sheer distress at its brutality.(84)

[TT9] 我々は戦争をこのようなものと見なさねばならない。戦争に含まれている粗野な要素を嫌悪するあまり、戦争そのものの本性を無視しようとするのは無益な、それどころか本末を誤った考えである。(上 30)

[ST] So muß man die Sache ansehen, und es ist ein unnützes, selbst verkehrtes Bestreben, aus Widerwillen gegen das rohe Element die Natur desselben außer acht zu lassen.(28)

[대안 번역] 전쟁은 이와 같이 보아야 하며, 전쟁의 잔인함을 혐오한다고 해서 전쟁의 본질을 간과하려 한다면 그것은 쓸모없고 잘못된 노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TT7과 TT8이 ST의 의미를 잘 살린 충실한 번역에 해당된다. 이 두 번역을 참조하여 대안번역을 제안한다. TT7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말 번역이 전쟁의 본질인 잔인함, 잔혹함, 극한에 이르는 무자비한 폭력성을 매우 ‘부드럽게’ 또는 부적절하게 번역했다. 충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TT4는 TT1의 ‘것’을 ‘관점’이란 낱말로 바꾼 것 외에 TT1과 똑같다. 이 부분에서도 TT4는 TT1을 표절했다. TT1은 전쟁의 잔인함을 ‘야성’으로 번역했다. 야성은 “자연 그대로의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므로, TT1은 ‘야성’으로 전쟁 본래의 잔인함을 의미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잔인함’ 없이 야성만으로는 전쟁 본연의 성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또한 ‘야성’은 야성미, 야성적인 힘, 야성적인 눈빛 등 잔인함과는 먼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TT5는 이 부분을 ‘야만’으로 옮겼다. 야만은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 또는 그런 종족”이나 “교양이 없고 무례함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즉 야만은 ‘야만-문명’ 또는 ‘야만-교양’과 짝을 이루며 대비되는 폭넓은 개념이다. 야만은 잔인함 이외의 많은 의미를 함축할 수 있고, 다소 ‘부드럽게’ 들린다.

TT6은 이 부분을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조잡한 요소’라고 번역했다. ‘조잡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 솜씨 따위가 거칠고 잡스러워 품위가 없다”는 뜻으로서, 전쟁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로는 부드럽고 약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TT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TT1, TT5, TT6의 ‘야성, 야만, 조잡’은 일본어 번역에 있는 ‘조야한 요소’를 변형한 느낌을 준다. ‘조야’ 전후에 있는 낱말과 문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TT2는 원문을 직역했다. 그런데 ‘거친 요소’에서

‘거칠다’는 “나무나 살결 따위가 곁이 곱지 않고 험하다” 또는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도 전쟁의 맥락에서는 ‘부드럽게’ 들린다.

TT3은 다른 우리말 번역과 달리 이 부분을 ‘전쟁 본연의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질’이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독자들은 ‘전쟁 본연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에서는 잔인함을 읽어낼 수도 없고 야성, 야만, 조잡, 조야를 읽어낼 수도 없다. 또한 TT3은 원문과 상관없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덧붙였다. ‘힘의 극대사용 문제’, ‘방식으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려’ 등은 불필요한 부분이며,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스스로의 이익마저도 거역하는’ 등은 ST 지향적인 번역도 아니고 TT 지향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 3. 3. 한자어의 남용 - 중역의 영향

이 부분은 전쟁의 적극적인 목적과 소극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적의 공격을 막기만 하는 전쟁, 방어만 하는 전쟁이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공격은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방어는 소극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공격할 때에도 방어를 생각하며, 방어할 때도 공격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과 아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을 대비해 살펴보아야 한다.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 쪽은 적을 파괴하려 한다. 소극적인 목적을 갖는 쪽은 적을 파괴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적이 아군에게 수행하는 행동을 기다리며 아군의 전투력을 잘 유지하려 할 것이다. 전쟁의 목적과 관련되는 특징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TT1] 적극적 목적을 수반하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하여 격멸행동을 취하고 또 소극적 목적을 수반하는 행동은 상대방이 취하는 괴멸행동을 대기(待機)하는 것이 된다.(권영길 상권 69)

[TT2] 적극적 목적을 수반하는 행동은 분쇄행동을 야기시키며 소극적 목적을 수반하는 행동은 다만 다가오는 분쇄행동을 위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이종학 101)

- [TT3] 적극적인 목적을 성취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상대방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행위를 벌이게 되는 것이며, 반면 소극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노력은 상대방이 아측에게 도전해 오는 파괴행위의 사태 전개를 기다리고 있는 격(格)이 되는 것이다.(김홍철 98)
- [TT4] 적극적 목적을 수반하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하여 격멸행동을 취하고 또 소극적 목적을 수반하는 행동은 상대방이 취하는 괴멸행동을 대기(待機)하는 것이 된다.(강창구 상권 69)
- [TT5] 적극적 목적을 지닌 노력은 격멸 행동을 수반하며 소극적 목적을 지닌 노력은 격멸 행동을 기다린다.(류제승 70-71)
- [TT6] 적극적 목적을 위한 노력은 상대에게 격멸 행위를 가하고, 소극적 목적을 지닌 노력은 적이 행하는 격멸 행위를 기다리는 것이 된다.(허문순 72)
- [TT7] 적극적 목적을 갖는 노력은 파괴행위를 불러일으키며 소극적 목적을 갖는 노력은 파괴행위를 기다린다.(김만수 1권 107)
- [TT8] The policy with a positive purpose calls the act of destruction into being; the policy with a negative purpose waits for it.(112)
- [TT9] 積極的目的を旨とする努力は、相手に對して擊滅行爲を仕掛け、また消極的目的を旨とする努力は、相手の仕掛ける擊滅行爲を待ち受けることになる.(상 85)
- [ST] Das Bestreben mit dem positiven Zweck ruft den Vernichtungsakt ins Leben, das Bestreben mit dem negativen wartet ihn ab.(59)
- [대안 번역] 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노력은 파괴행위를 일으키고, 소극적 목적을 번역] 이루려는 노력은 그것을 기다린다.

이 부분에서 TT4는 TT1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sup>11)</sup> TT1, TT2, TT6은 ‘격멸, 괴멸, 수반, 대기’(TT1), ‘분쇄, 수반, 야기’(TT2), ‘격멸’(TT6) 등 어려운 한자말로 읊겼다. 그래서 세 번역이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준다. TT9를 보면

11) 이런 경우는 “우리말 번역을 다시 우리말로 중역한”(이인규 2002: 269) 표절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번역 작업은 번역 윤리와 떼어놓을 수 없게 된다(윌리엄스와 체스터먼 2006: 17-20).

알 수 있듯이, 이는 일본어 번역을 중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어를 원전으로 삼아 번역했다고 밝힌 TT5도 이 부분을 ‘격멸’이라고 번역했다. 독일어 원문에 있는 ‘Vernichtung(destruction)’은 영어 번역처럼 ‘파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는 번역 비평에서 유효성 논의를 무력하게 만든다. 번역 비평에서 “비평가는 번역본 간의 시차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유효적(有標的, marked) 요소로 인지하여 번역 텍스트 비평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전현주 2008: 63) TT1은 1972년에, TT6은 2009년에 출간되었다. 약 40년의 시차를 보이므로, 번역 비평에서 유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공법’의 경우에도 보았듯이, 『전쟁론』의 우리말 TT에서는 통시적인 유효성을 고려하려 해도, TT들이 유효성을 무시하고 있다.

물론 이전의 번역본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말이든 일본어든 영어든 그 번역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 번역은 풍부한 각주를 담고 있어 참고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그것이 ‘참고’ 이상이 될 때, 우리말 번역은 쓸데없이 어렵게 되고 중역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원문에 없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전쟁론』과 같은 고전을 번역할 때는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이 취하는’(TT1), ‘다만 다가오는’, ‘시간을’(TT2), ‘상대에게’, ‘적이 행하는’(TT6) 등의 덧붙임 등도 일본어 번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TT3은 ‘Vernichtung’을 파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 있지 않은 말을 (‘결국’, ‘상대방의 전투력을’, ‘상대방이 아측에게 도전해 오는’, ‘사태 전개를’, ‘있는 격(格)이 되는 것이다’ 등) 많이 삽입하여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졌다. 이 부분에서도 TT7이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TT7은 ‘파괴행위’를 중복해서, 대안번역에서는 그것을 원문에 맞게 대명사로 고쳤다.

이 비교 분석으로(3. 1. - 3. 3.) 알 수 있듯이,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개념을 잘못 번역한다든지 용어에서 오류를 보이고 한자어를 많이 쓰는 문제점 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말 번역이 일어 번역의 중역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나중에 출간된 번역이 먼저 출판된 번역을 표절 한 데서 비롯된다. 이 점이 『전쟁론』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 번역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TT7뿐이다. 아래에서는

(3. 4. - 3. 5.) 『전쟁론』의 초역에 해당되는 TT3과 TT5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두 번역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 3. 4. 지명 표기의 오류 - 발렌시아와 발랑시엔

여기에서는 외국의 지명 표기 및 외국의 지리와 관련된 배경지식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TT5와 TT7의 번역을 주로 비교한다. 이 부분에서 TT5는 발랑시엔을 발렌시아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TT5] 모든 수송수단을 강제로 조달해야 했던 빌나(Wilna)에서 모스크바(Moskau)에 이르는 연락선과, 상업 거래와 환어음으로 수백만 끼니의 식량을 조달하는 데 충분했던 병참선, 즉 쾰른(Köln)에서 뤼티히(Lüttich), 뢰벤(Löwen), 브뤼셀(Brüssel), 몽스(Mons), 발렌시아(Valenciennes), 캄브레(Cambrai)를 경유하여 파리(Paris)에 이르는 연락선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류계승 247-248)

[TT7] 빌나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병참선과 쾰른(Köln, Cologne)에서 뤼티히, 뢰벤(Löwen, Louvain), 브뤼셀(Brüssel, Brussels), 몽스(Mons), 발랑시엔(Valenciennes), 캄브레(Cambrai)를 거쳐 파리에 이르는 병참선 사이의 차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전자에서는 모든 식량을 강제로 빼앗아야 하지만, 후자에서는 몇 백만 명의 식량을 조달하는 데 상거래상의 계약과 어음 한 장으로도 충분했다.(김만수 2권 143-144)

[TT8] How vast a difference there is between a supply line stretching from Vilna to Moscow, where every wagon has to be procured by force, and a line from Cologne to Paris, via Liège, Louvain, Brussels, Mons, Valenciennes and Cambrai, where a commercial transaction, a bill of exchange, is enough to produce millions of rations!(407)

[ST] Welch ein ungeheurer Unterschied zwischen einer Verbindung von Wilna auf Moskau, wo jede Fuhre mit Gewalt herbeigeschafft werden muß, oder von Köln über Lüttich, Löwen, Brüssel, Mons, Valenciennes, Cambrai nach Paris, wo ein kaufmännischer Auftrag, ein Wechsel hinreicht, Millionen von Rationen herbeizuschaffen.(350)

[대안 번역] 스, 발랑시엔, 캄브레를 지나 파리에 이르는 보급로의 차이는 엄청난

데, 전자에서는 식량을 무력으로 조달해야 하지만 후자에서는 몇 백만 명의 식량을 조달하는데 어음 한 장과 같은 상업상의 계약으로도 충분하다.

발렌시아(Valencia)는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발렌시아 주의 주도(州都)다. 그리고 발랑시엔(Valenciennes)은 프랑스 북부 노르-파드칼레(Nord-Pas de Calais) 지방에 있는 도시다. 두 지역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발랑시엔을 발렌시아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TT5에서는 발랑시엔의 알파벳[Valenciennes]은 제대로 적고, 우리말로써는 엉뚱하게 ‘발렌시아’로 표기했다.<sup>12)</sup>

이 부분의 주제는 ‘보급’이다. 쾰른, 리에주, 루뱅, 브뤼셀, 몽스, 발랑시엔, 캉브레, 파리는 모두 독일 북부, 벨기에, 프랑스 북부의 도시들로서 상공업이 발달된 도시들이다. 파리도 프랑스의 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도시들에서는 어음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으로도 병사들의 식량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빌나에서<sup>13)</sup> 모스크바에 이르는 길에는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농업이 주를 이루므로, 식량을 농민으로부터 무력으로 조달해야 한다. 즉 어느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에 따라 이동 중에 있는 병사들의 식량 조달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이 말하는 내용의 전부다.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은 어느 번역에서나 중요하겠지만, ‘전쟁’이나 ‘군사’와 관련된 책을 번역할 때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북서쪽의 쾰른에서 프랑스 파리에 이르는 길에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등장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몽스에서 파리를 앞두고 스페인의 발렌시아로 방향을 바꾸어 천 킬로미터 이상을 남쪽으로 더 간 다음에 다시 북상하여 파리로 이동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번역에서 ‘발랑시엔’ 부분만 살펴본다. 일본어 번역은 “ヴァランシエンヌ”(中 239)라고 적은 다음에, “フランス北部の都

12) 안정효(2006: 16-29)는 St. Exupery를 ‘생텍쥐페리’로 적지 않고 ‘성 엑수페리’로 옮기는 황당한 예를 소개하며, 고유명사도 제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3) ‘빌나’는 리투아니아의 수도인데, 빌니우스, 빌뉴스, 빌나(Vilnius, Vilna, Wilna)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다.

會”(中 240)라고 주를 달았다. TT1은 “발란시엔누”(상권 432), TT4는 “발란시엔누”(상권 446), TT2는 “발란시엔느”(327)로 표기했다. 이 세 번역은 일본어 발음을 ‘충실하게’ 따른 인상을 준다. 이 점에서도 이 번역들이 일본어 중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번역들을 참조했다면 TT5에서 발랑시엔을 발렌시아로 표기하는 오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TT7이 충실한 번역에 해당된다. 특히 쾰른, 뢰벤, 브뤼셀 등 독일어 표기와 영어 표기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 TT7은 둘을 함께 적었다. 그리고 뢰벤이 “루뱅(Louvain)의 독일어 표기”(2권 144)라는 해설을 덧붙여 독자를 배려했다. 이러한 배려를 뤼티히(Lüttich, Liège)에도 확대하여, ‘뤼티히’를 원음에 가깝게 ‘리에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이롭다. 앞의 대안번역에서는 이 점을 바로잡았고, TT7의 불필요한 과거형 ‘충분했다’를 ‘충분하다’는 현재형으로 고쳤다.

또한 TT7의 ‘병참선’은 대체로 후방 지역에서 쓰는 개념이고, 전투 지역에서는 주로 ‘보급로’라는 개념을 쓴다. TT5의 ‘연락선’은 ‘보급’을 넘어선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연락선이나 병참선도 보급로로 고쳤다. 이 부분에서 TT7처럼 한 문장을 둘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했다. 여기에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므로 대안번역에서는 한편으로 지명들을 먼저 쓰고 그곳의 특성을 다른 문장으로 옮긴 TT7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문의 한 문장을 번역에서도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 3. 5. 표현상의 문제 - 장황한 문장

당연한 말이지만,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이해하기 쉽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문장이 길어지면 문장의 뜻이 모호해질 수 있고 문장의 의미도 이해하기 어려워지며 비문이 될 확률도 높아진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TT3만 살펴본다. 그리고 그 문장을 TT7의 문장과 비교할 것이다.

[TT3] 어떠한 불의의 대화에 임했을 때, 즉 의외의 화제나 질문이 튀어나왔을 경우, 지극히 간단명료하면서도 함축성 있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마음의 침착성에서 우리나라오는 것이고, 어떤 갑작스런 위험에 처했을 경우라도 이를 임기응변적으로 잘 처리해 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의 평온상태와 침착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김홍철 110)

[TT7] 예기치 않은 연설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침착성에 감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위험에 처해 신속한 조치를 찾아냈을 때도 그 침착성에 감탄한다.(김만수 1권 122)

[TT8] We admire presence of mind in an apt repartee, as we admire quick thinking in the face of danger.(119)

[ST] Man bewundert die Geistesgegenwart in einer treffenden Antwort auf eine unerwartete Anrede, wie man sie bewundert in der schnell gefundenen Aushilfe bei plötzlicher Gefahr.(67)

[대안 갑작스런 위험에 처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을 때 사람들이 그 침착성 번역] 에 감탄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연설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도 사람들은 그 침착성에 감탄한다.

이 부분에서 TT3은 자신의 말과 달리 ‘간단명료하지’ 않으며, 문장이 너무 장황하다. 영어 번역은 원문과 달리 문장이 너무 짧다. 첨삭이 많이 수행되어 원문의 뜻이 다소 손상되었다. TT7은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하지만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었다.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이것이 문학작품이 아니므로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번역에서는 원문에 맞게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쳤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TT3은 한두 군데에서만 이런 식으로 긴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장황하게 늘였다. 끝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한다.

[TT3]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해 둘 것은, 적이 취해 올 행동을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절대적인 인내사항(忍耐事項)으로 간주된다는 가, 아니면 수세(守勢) 일변도의 행동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비록 수세적인 행동의 범위 속에 자기 자신을 묶어 두고 있는 경우일 지라도 이 같은 아측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분쟁상태 속에

말려들고, 걸려 들어온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는 경우에 있어서 취하는 행동목표와 전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으로 그치겠다.(김홍철 98)<sup>14)</sup>

[TT7] 여기서는 기다림이 절대적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다림과 관련된 행위에서도 이 행위와 갈등을 일으키는 적의 전투력의 파괴는 다른 모든 대상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김만수 1권 107)

[TT8] For the moment we need only say that a policy of waiting must never become passive endurance, that any action involved in it may just as well seek the destruction of the opposing forces as any other objective.(113)

[ST] Hier müssen wir uns begnügen zu sagen, daß das Abwarten kein absolutes Leiden werden darf und daß in dem damit verbundenen Handeln die Vernichtung der in dem Konflikt dieses Handelns begriffenen feindlichen Streitkraft ebensogut das Ziel sein kann wie jeder andere Gegenstand.(59-60)

[대안 번역] 여기에서는 기다림이 절대적인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과 관련된 행위에서도 그것과 모순에 빠지는 적군 전투력의 파괴는 다른 모든 대상처럼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본 전쟁의 적극적인 목적 및 소극적인 목적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클라우제비츠는 기다림이 절대적인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기다리는 중에도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절대적인 고통이란 오로지 맞기만 하는 것, 반격하지 않은 채 상대의 공격을 오로지 당하기만 하는 것이다. 이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공격할 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기다림의 목적은 아군의

14) 이 부분과 바로 앞에 있는 TT3에는 ST나 다른 TT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려고 밑줄을 긋지 않는다.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번역자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전투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기다리는 행위는 적에 대한 파괴와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기다리느라고, 즉 아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느라고 적을 파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적에 대한 공격은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적에 대한 파괴는 기다릴 때에도 전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마치 적의 어느 지역, 교량, 건물 등과 같은 대상을 파괴하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과 같다.<sup>15)</sup>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할 때, TT3의 두 번째 문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내용상으로도 오역이다.<sup>16)</sup>

TT3은 원문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과도한 첨삭을 수행했다.<sup>17)</sup>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번역이다. 이 정도 수준의 번역은 ‘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가독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TT7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대안번역에서는 TT7에서 약간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고쳤다.

- 
- 15)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설서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전쟁론』처럼 방대하고 난해한 고전의 경우에는 해설서의 출간이 요구된다(김만수 2009b: 323-325). 더욱이 『전쟁론』에 수많은 인물, 지리, 전쟁, 전투, 용어 등이 나오고 그간 『전쟁론』에 관한 연구들이 축적된 것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전쟁론』 번역에도 연구번역 내지 학술번역 수준의 번역물이 출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술번역의 훌륭한 예로는 김진성이 번역하고 해설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박상익의 번역과 해설로 출간된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를 들 수 있다.
- 16) 일반글쓰기와 달리, 번역글쓰기는 늘 출발어의 간섭을 받는다. 공동번역이 아니라 단독번역일 경우에 간섭은 더욱 심해진다. 이런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초벌번역 이후에 출발어 텍스트를 고려하지 말고 도착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일관된 재번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발어 텍스트를 본 적이 없는 제3자의 도움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손지봉 2008: 76-77). 하지만 초벌번역이 TT3처럼 되어 있다면, 제3자는 그 번역을 어떻게 윤문해야 할까? 제3자의 윤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 17) 피터 뉴마크의 번역 방법론에 따르면, TT3은 ‘자유 번역’이나 ‘번안’에 해당될 것이다(이근희 2008: 65 참조). 번역자의 자의적인 첨삭은 번역윤리의 문제와도 관련된다(이상원 2005: 136).

#### 4. 맺음말

『전쟁론』의 TT와 ST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에 나타난 제일 큰 문제점은 많은 번역들이 일본어 번역의 중역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쟁론』을 처음으로 번역한 TT1이나 TT1과 같은 해에 출간된 TT2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T4, TT6은 TT1을 지나치게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TT4는 TT1의 표절이다.<sup>18)</sup> 이들 TT에는 『전쟁론』의 핵심 개념을 오역한다든지 용어를 번역하는데 오류를 보이고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등의 공통점을 보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실성과 가독성 모두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에서 『전쟁론』이 잘 읽히지 않고 주로 인용만 된 데는 이 번역들의 (무)책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전 번역과<sup>19)</sup> 달리,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에서는 중역과 표절의 악영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초역을 들 수 있다. 초역으로는 TT3과 TT5를 들 수 있다. TT3은 변안 수준의 ‘자유로운’ 번역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문장이 너무 길어 번역인지 창작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충실성과 가독성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TT5는 직역투의 문장이나 배경지식의 오류를 볼 수 있다.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애썼지만, 가독성은 다소 떨어진다.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에서 TT7만 독어 원전을 완역했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영어 번역과 일어 번역도 참고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설을 달았으며,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려 했다. 충실성과 가독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큰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번역본이다.

18) “비평가들은 표절 번역에 대한 강한 반감의 표시로 해당 텍스트에 대한 외적 용인성을 박탈한다.”(전현주 2008: 116) ‘미시 분석’의 방법론상, 외적 용인성을 부여할지 문제는 본 논문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듯이, 그것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축적한 후에 수행할 것이다. 용인성과 관련된 최근의 이론적인 논의로는 구하나(2010) 참조.

19) 예를 들어 맑스의 『자본론』의 경우에는 영어 중역본이 독어 원전의 번역본보다도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현주 2008: 245-246).

‘미시 분석’ 방법론은 이 논문의 장점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전쟁론』의 TT들의 일부분과 ST를 자세하고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번역본 전체를 살펴볼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전쟁론』 원문과 번역본들을 약 3분의 1 정도 검토하였지만, 여기에 든 예들이 너무 적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개념이나 용어 또는 외국의 지명 표기 등 문장 (이하)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것도 ‘미시 분석’ 방법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와 같은 비교 분석 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더 많이 축적하여 그 결과를 더 많이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미시 분석은 ‘거시 분석’으로, 현미경 분석은 ‘망원경 분석’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념이나 문장 수준의 비평을 넘어 『전쟁론』 텍스트 전체에 대한 비평으로 비평의 지평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쟁론』 번역에서도 학술번역<sup>20)</sup> 수준의 번역물 출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전쟁론』 (번역) 텍스트]

클라우제비츠, 권영길 옮김 (1972) 『전쟁론』, 하서출판사.

\_\_\_\_\_, 이종학 옮김 (1972) 『전쟁론』, 대양서적.

\_\_\_\_\_, 김홍철 옮김 (1982) 『전쟁론』, 삼성출판사.

\_\_\_\_\_, 강창구 옮김 (1991) 『전쟁론』, 병학사.

\_\_\_\_\_, 류제승 옮김 (1998) 『전쟁론』, 책세상.

\_\_\_\_\_, 허문순 옮김 (2009) 『전쟁론』, 동서문화사.

\_\_\_\_\_, 김만수 옮김 (2006-2009) 『전쟁론』, 갈무리.

\_\_\_\_\_, 篠田英雄 譯 (1968) 『戦争論』, 岩波書店.

Clausewitz, Carl von (1993) *On War*, translated by M. Howard and P. Paret, New York: Alfred A. Knopf.

20) 학술번역 또는 탐구번역에 관해서는 전성기(2009b) 참조. 벤츠키(G. Venzky)는 이미 1700년대에 훌륭한 번역은 주석을 활용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견해를 밝혔다(김효중 2000: 42).

\_\_\_\_\_ (1999) *Vom Kriege*, München: Ullstein

[일반 참고문헌]

- 강대진 (2004) 『잔혹한 책읽기』, 작은이야기.
- 구하나 (2010) 「번역평가와 “용인성”」, 『통번역학연구』 13(2): 1-28.
- 김만수 (2003a) 「『전쟁론』 번역서 유감」, 『군사학연구』 창간호: 1-34.
- \_\_\_\_\_ (2009b) 「『전쟁론』 완역 후기」, 『군사학연구』 제7호: 305-331.
- \_\_\_\_\_ (2010c) 「수량 표현과 문화의 이해—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97-126.
- 김효중 (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독일의 전통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창간호: 33-57.
- 밀턴, 박상익 역주 (1999) 『언론 자유의 경전 아레오파기티카』, 소나무.
- 발리바, 사회진보연대반전팀 옮김 (2006) 「전쟁으로서의 정치, 정치로서의 전쟁: 포스트-클라우제비츠적인 변이들」, 『사회운동』 10월호(제68호): 108-142.
- 손지봉 (2008) 「번역에서 글쓰기의 위상과 전략」, 『번역학연구』 9(3): 73-92.
- 아리스토텔레스, 김진성 역주 (2007) 『형이상학』, 이지이북스.
- 안정효 (2006) 『번역의 공격과 수비』, 세경.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 윌리엄스와 체스터먼, 정연일 옮김 (2006) 『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이지북스.
- 이근희 (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이상원 (2005)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한국학술정보.
- 이인규 (2002) 「찰스 디킨즈 소설의 번역 점검」, 『안과밖』 제13호: 254-279.
- 이재호 (2005) 『문화의 오역』, 동인.
- 이종학 (2002a)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재번역에 관한 단상」, 『군사논단』 통권 32권: 143-149.
- \_\_\_\_\_ (2002b)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연구(1)」, 『군사논단』 통권 33권: 156-166.
- 전성기 (2008a)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고려대학교출판부.
- \_\_\_\_\_ (2009b) 「탐구번역론—하나의 인문학 번역론」, 『번역학연구』 10(2): 133-157.

전현주 (2008) 『번역 비평의 패러다임』, 한국학술정보.

Duden (1990) *Das Universalw rterbuch*, Mannheim: Dudenverlag.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Translations of Clausewitz's  
*Vom Kriege***

Kim, Man-su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Research fellow)

This paper analyzes seven Korean-translated texts of Clausewitz's *Vom Kriege*,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of so-called micro-analysis, meaning a detailed and exhaustive study of the texts. The criteria for analysis is the faithfulness and readability, which are in general accepted in translation studies. The serious problem in four texts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they were re-translated to Korean from those originally translated into Japanese. These re-translations inevitably made large and small errors in the form of words, terms, concepts etc. In these texts some Korean-translated sentences that were overly influenced by Chinese characters were too difficult to understand. Two texts are the abridged translations. Here some sentences were unnaturally long, or a French geographical name was incorrectly transcribed into Korean. Only one Korean translation is acceptable in terms of faithfulness and readability. If the analysis of this kind is continued and accumulated, and the micro-analysis is extended into macro-analysis, we may expect a reliable Korean translation of *Vom Kriege* in the future.

▶ Key Words: Clausewitz, *On War*, Korean translations, Comparative Analysis



김만수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mansasuwol@hanmail.net](mailto:mansasuwol@hanmail.net)

관심분야: 『전쟁론』, 서양고전 번역, 사회과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